

2025년 동아시아 금융채무 피해자 교류집회

금융 소비자 피해자 단체 및 연대 단체 활동 소개

우리는 피해자가 안고 있는 **스티그마(Stigma)**
오명 사회적 낙인) 에 어떻게 맞서 왔는가

보고자 일본 전국 신용 사채 생활 재건문제
피해자 연락 협의회 사무국장 니가와 신이치(新川眞一)

우리는 피해자가 안고 있는 **스티그마(Stigma 오명)**에 어떻게 맞서 왔는가

- ▶ 목차
- ▶ 제1 채무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수치심**에 관한 논의 (=스티그마 STIGMA 오명)
 - ▶ ‘빌린 사람(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이 나쁘다’는 사회적 낙인의 발생 근거
- ▶ 제2 당사자 운동은 언제나 STIGMA 극복을 위한 투쟁
 - ▶ 1 피해자 단체(자구회, 自救會)의 존재 의의
 - ▶ 2 모든 단체가 함께해 온 운동 제1편(체험담)
 - ▶ 3 모든 단체가 함께해 온 운동 제2편(생활재건 교육)
 - ▶ 4 모든 단체가 함께해 온 운동 제3편(길거리 운동)
- ▶ 제3 스티그마 극복을 위한 투쟁이 법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켜 왔다
- ▶ 제4 스티그마 극복을 위한 새로운 관점 의존증(어딕션)문제의 직면

제1 채무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수치심에 관한 논의(=스티그마 S T I G M A오명) '빌린 사람(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이 나쁘다'는 사회적 낙인의 발생 근거

▶ 1 사회보장 제도의 취약성

▶ 일반적으로 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과 달리, 일본은 사회보장 제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일반 소비자를 위한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제도는 극히 드물다.

▶ 2 고금리 금융이 사회 보장의 일부 기능을 대신함

▶ 일본에서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를 기점으로 신용카드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 그 결과, 고금리 금융은 역설적으로 공적 사회보장의 한 축을 대신했다고 볼 수도 있다

▶ 3 종교적 문화

▶ 일본에서는 불교와 신도(사찰이 민간에게 베푼 시혜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것을 도의로 여기는 관습)가 오래전부터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반면, 가톨릭(유이자 대출을 범죄로 보는 사상)은 크게 확산되지 못함

▶ 4 강고한 가족적 유대

▶ (1) 일본 사회에서는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의 수치는 곧 가족 전체의 수치라는 사고방식이 여전히 뿌리깊다.

▶ 이로 인해, 부모나 가족에 의한 대리 변제가 일정 정도 존재한다

▶ e x 대만연합신용정보센터(JCIC)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321건, 2010년대에는 약 1,000건의 친족 대리 변제가 정보로 등록 되어있다.

▶ 일본의 지정신용정보기관 CIC(CREDIT INFORMATION CENTER)는 친족에 의한 대리 변제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 한도에 도달해 신규 차입이 불가능해진 부모의 채무 상환을 자녀가 카드 대출로 갚는 등, 사실상의 대리 변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2) 부모나 가족에 의한 대리 상환으로 변제 지원 → 본인의 신용한도가 확대되며, 대부업자가 다시 본인에게 대출함→ 또다시 부모나 가족에 의한 대리 상환으로 변제 지원

▶ (3) 부모와 가족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채무가 재발하여 생활 재건에 악영향을 미친다.

▶ 5. 결론 빌린 돈은 갚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갚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수치이자 가족 전체의 수치 → 이러한 사상 문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제2 당사자 운동은 항상 STIGMA 극복을 위한 투쟁

- ▶ 1970년대 후반부터 무담보 고금리 융자(이른바 ‘샐러리맨 금융’)이 급속히 확산됨



- ▶ 법률가와 피해자 당사자 단체(자구회)는 1980년 초반부터 거의 동시에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양 단체의 활동은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 ▶ 일본 전역을 종단하는 가두 선전 활동과 더불어, 모든 도도부현마다 하나의 피해 당사자 단체가 설립됨(각 자구회 창설의 핵심 기반은 중소기업자 상공단체, 사회보장 증진을 요구하는 단체, 그리고 법률가 등이다)

▶ 피해자 단체(자구회)의 존재 의의

- ▶ 폭력적 채권추심을 경험한 채무자의 굴욕을 공론화하는 장
- ▶ 인간성을 회복하는 장
- ▶ 생활 재건의 장
- ▶ 연대와 교류의 장

▶ 제2 당사자 운동은 항상 STIGMA극복을 위한 투쟁

▶ 모든 단체가 함께해 온 운동 제1편

▶ 피해 당사자가 직접 집필한 **수기 출판**

▶ **(Victim's stories)**

▶ 생생한 체험은 법률가와
지원자들의 활동 원천

▶ 제2 당사자 운동은 항상 STIGMA극복을 위한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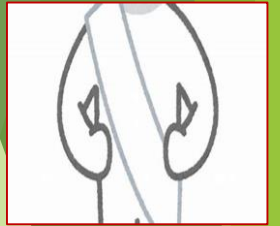
▶ 모든 단체가 함께 해온 운동 제2편

▶ 생활재건 교육

▶ 상담원은 피해 당사자에게 금융업자의 폭력에 굴하지 않고 맞설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한다

▶ 건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 금전에 의한 순간적인 일확천금을 추구하는 생활 태도에서 벗어나, 건실하고 계획적인 생활을 설계하도록 지도(가계부 작성 등)

- ▶ 제2 당사자 운동은 항상 STIGMA 극복을 위한 투쟁
- ▶ 모든 단체가 함께해 온 운동 제3편



- ▶ 당사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운동으로
- ▶ **피해당사자 자신이 거리로 나선다**
- ▶ 얼굴을 드러내고 어깨띠(일본의 ‘타스키(襷)’, 대만의 ‘베이신(背心)’을 두르고 ‘재무 피해를 철폐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홍보했다.
- ▶ 피해 당사자가 직접 전단지와 포스터를 배포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제3 스티그마 극복을 위한 투쟁이 법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켜 왔다.

- ▶ 스티그마를 극복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운동에 나서는 것
 - ▶ (피해자 단체 결성, 교육 홍보 활동)
 - ▶ ↓
 - ▶ **여론이 변화함**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사이에 공감 확산)
 - ▶ ↓
 - ▶ **법률이 제정됨** (1983년 대부업규제법 제정, 2010년 개정 대부업법 전면 시행)
 - ▶ 채권추심 규제, 금리상한 규제, 대출총량 규제 등
- ▶ * 사회적 반발도 발생
 - ▶ 탈법 행위(불법사채, 신종 불법사채)의 대두
 - ▶ 일부 법관에 의한 면책불허가 결정 남발 문제(1987년경)
- ▶ **사회적 상식의 전환**
 - ▶ 과거의 상식(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만 한다)
 - ▶ 현재의 상식(폭력적 채권추심, 과잉대출, 고금리는 사회적 악이다)

▶ 제4 스티그마 극복을 위한 새로운 관점 의존증(어딕션)문제의 직면

▶ 고금리 금융피해에 내재된 의존증(addiction)의 존재

▶ 의존증(쇼핑 의존증, 스마트폰 의존증, 도박 의존증, 알코올 의존증, 약물 의존증 등)

과 연계, 교차되는 고금리 금융 피해(스마트폰을 매개로 과잉 대출, 과잉 광고, 과잉 권유가 전개되고 있음)

▶ 도박 피해에 대응하는 피해자 단체

▶ 오사카의 피해자 단체는 자조 그룹(특히 갬블러 어나니머스(GA))와의 연계에 힘쓰며, 도박 의존증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친가족에 의한 변제는 중독을 가능하게 하는 ‘이네이블(enable)’! 에 해당한다는 점을 배우는 것

▶ 이네이블(enable, 중독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따른 악순환

▶ 부모나 가족이 대신 상환하여 변제를 지원 → 본인의 신용 한도가 확대되어 다시 대부업자가 본인에게 대출 → 결국 또다시 부모나 가족이 대신 상환하여 변제를 지원

▶ 부모와 가족의 지원 의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채무가 재발한다. (본인의 생활 재건에 악영향)

▶ 사회적 체면(SEKENTEI) (체면, saving face)

▶ 공동체 사회의 일원 VS 개인의 존엄과 확립의 관념

▶ 가족과 공동체는 연대 책임 vs 개인주의(법률은 개인주의에 기초한다 가족이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연대 채무자나 보증인이 되지는 않는다)

▶ 법률을 무기로 삼는 동시에 가족과 사회 전반에서 ‘개인의 존엄’ 과 ‘자립적 개인’을 존중하는 문화와 풍습을 형성하는 계몽운동의 필요성

- ▶ 피해자 단체의 존재 의의에 대해
- ▶ 피해자 운동은,
- ▶ 법을 바꾸고, 새롭게 만드는 운동이며,
- ▶ 동시에 스티그마(낙인)의 사회문화를 바꾸는 운동이기도 하다

▶ 마침

-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